“영세 소상공인 세액공제마저 축소… 벼룩의 간 빼먹는 격”

송치영 소공연 회장 긴급간담회
세부담 최대 6000억 증가 우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
내년 봄부터 ‘줄폐업 쓰나미’ 경고

‘일법 패키지’ 결사 반대 재천명
정책 참여 확대·대통령 면담 요구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소공연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209만명은 당장 내년부터 19%, 최대 총 6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고 ‘미래대응기금’에도 200조원 이상이 쌓인다고 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으로 영세 소상공인 쌈짓돈부터 걷어가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2027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관련해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한도 역시 연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되는데 세액공제를 줄이면 결국 영세 소상공인에게 세금만 더 걷어가는 꼴이라는게 소상공인업계의 판단이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소공연이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2조9000억원), 2분기 대비 7.3% 급증했다. 게다가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661만원(-4.36%), 분기 평균 이익은 1020만원(-8.30%) 감소했다.

송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소상공인들은 정치·경제적 격변과 끝없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견뎌왔지만 연말 대목을 앞두고도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내년 봄부터 줄폐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닥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호소했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소공연은 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중심으로 한 소위 ‘일법 패키지’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에 나서 김영훈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원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나 홀로 사장님’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

소공연은 근로자추정제를 통해 최대 870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으로 1인당 연간 505만원(월 42만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44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회장은 “법률 대응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에게 반증 책임을 전가해 ‘퇴직금 폭탄’ 분쟁과 범법자를 양산하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며 “전체 산업 종사 자의 45% 이상을 책임지는 ‘고용의 저수지’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고용의 둑 자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장관을 향해선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만 밀어붙이는 ‘노동계 청부사’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격년제 도입·주휴수당 폐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라”고 전했다.

현 이재명 정부에는 주요 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대통령은 올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농어민과 각각 공식 대화 자리를 마련했지만 소상공인과는 한 차례도 공식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도하장비 ‘수룡’ 수출길 열어

獨 원제작사와 계약개정·수출권 확보
유럽·중동·아시아 등 수출 가능
K-방산 패키지 수출 확대 기대


군 장병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 자주도하장비(KM3) 수룡을 활용해 장비 도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의 해외 수출 권한을 확보했다. 우리 군 전력화로 검증받은 장비가 수출로 이어진 사례로, 자주포·장갑차 등 기존 주력 무기체계와 묶은 K방산 패키지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KM3의 원제작업체인 독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러피언 랜드시스템즈-브리지시스템즈(GDELS-BS)와 면허생산계약(MLA)을 개정해 해외 수출 권한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KM3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DELS-BS의 M3 자주도하장비를 들여온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장비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수입국이 M3의 수출 권한까지 확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KM3는 자주포와 전차, 장갑차 등 육군 주력 장비가 강과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생산해 2024년 6월부터 군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야전운용시험과 전력화 평가 등 주요 검증을 마쳤고 내년까지 1차 양산 물량을 공급한 뒤 2028년부터 2차 물량 전력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양산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생산량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계약 개정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가 커진 한국과 독일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됐다. 1차에 이어 2차 양산까지 추진되는 등 우리 군의 운용 사례가 쌓이면서 KM3를 찾는 해외 수요도 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최원혁 HMM 대표 연임… 사업 다변화 속도

2028년 3월까지 대표이사 임기 연장
사업 다변화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



HMM은 25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원혁 대표(사진) 이사를 재선임하고 연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원혁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HMM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원혁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안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HMM 이사회는 최 대표의 추천 사유에 대해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약 40년간 경력을 쌓아왔으며, HMM 및 LX판토스에서 약 10년간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검증된 경영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핵심 경쟁력 확보, 중장기 투자, 조직문화 개선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글로벌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표이사 연임을 통해 HMM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원혁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컨테이너선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벌크·자동차운반선·가스선 등으로 다변화하고, 장기 운송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선대 확대가 아니라 HMM을 컨테이너 해운 중심 기업에서 종합 해운·물류기업으로 전환이다.

/양성운 기자 ysw@

45년 혁신 일군 명문장수기업 12곳 선정

중기부, 매일식품·동화엔텍 등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45년 이상 혁신으로 성장한 명문장수기업 12곳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2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2026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한 80곳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혁신활동 등을 평가해서 12곳을 추렸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총 75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 타이틀을 얻게 됐다. 중소기업 중에선 광신기계공업, 대진코스탈, 동방전기공업, 매일식품, 명진TSR, 삼우금속공업, 이노블록, 제이피아이헬스케어, 한국OSG, 합동물류가, 중견기업 가운데는 동화엔텍, 서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명문장수기업 선정에는 업력과 함께 기업이 장기간 쌓아 온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경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반영된다. 중소기업으로 올해 81년이 된 매일식품은 간장·고추장 등 장류부터 조미료·라면 등 가공식품까지 생산하는 종합식품 제조기업이다.

업력 46년의 중견기업 동화엔텍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열교환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세계일류상품 6개를 보유하고 고압 LNG용 열교환기 세계시장 점유율 약 70%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조선·해양 기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에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돌아간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미래 여성 창업가 육성

학생 550명 창업 역량 키워

미래 여성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날 경기 광명시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을 열었다. 여경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전국 고교 및 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발굴부터 전문 멘토링, IP 코칭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취업을 촉진하고 미래 여성경제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550명의 학생이 참여해 총 382건의 창업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윤균중 삼성중공업 부사장 / 염철성 삼성중공업 부사장 / 김경수 삼성중공업 부사장

삼성重, 기술·제조 분야 핵심 인재 전진 배치

부사장 3명 등 총 10명 승진

삼성중공업이 주력 사업의 수행 능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제조 분야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중공업은 부사장 3명, 상무 6명, 마스터(Master) 1명 등 총 10명을 승진시키는 2027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와 LNG 운반선의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높이고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의 스마트·자동화 조선소 구축을 이끌 인재도 발탁했다. 삼성중공업은 조만간 정기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